

-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-

제안설명서

설명자: 정순옥 대표의원

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연구단체는 2023년 6월 2일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, 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은 총 5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강한곤, 장호섭, 이선주, 김장관 의원님입니다.
- 최근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와 무질서 등으로 인해 도시공원이 여가 공간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. 특히 공원 내 범죄의 발생이 더욱 잦았던 올해는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여성과 아동, 어르신들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.
-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주민의 불안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 및 정책의 개발, 법제 연구가 크게 필요한 시점입니다.
- 이에 본 연구회는 “도시공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”라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으며, 도시공원이 주민들의 안전한 쉼터가

될 수 있도록 관내 조성된 공원의 환경설계에 셉테드(CPTED) 즉,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정책이 실제 공원에 잘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지표의 개발과 실제 공원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공원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공원 조성·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.

- 또한 선행 연구 및 국내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추진 정책과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 조성·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제안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본 연구회의 연구활동기간은 6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연구용역은 6월 15일 착수하여 보고회, 현장견학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23일 완료를 하였습니다.
- 지난 6월 21일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7월 20일 공원 범죄예방 안전성 평가 지표 검토와 연구 수행 방향 점검을 위해 간담회 개최를 하였으며,
- 8월 29일에는 CPTED 적용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부산일대 셉테드 시설인증 최우수 등급을 2016년, 2021년 연이어 받은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한 푸른솔밭공원, 삼락생태공원으로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.
- 이어서 8월 한달동안 실시한 ‘도시공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’의 중간 점검과 향후 방향 논의를 위해 9월 4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

- 9월 13일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, 열악한 공원을 부서에서 추천 받아 대진공원, 치영어린이공원으로 현장 방문을 다녀오는 등 본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
-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 공유와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을 위해 9월 2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, 10월 31일에는 간담회를 열어 연구회 활동을 평가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5개월간의 연구회 활동을 함께 마무리하였습니다.

□ 본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첫째, 달서구의 도시공원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
 - 현재 달서구에 조성된 도시공원은 170개소로 근린공원 35개소, 어린이공원 124개소, 소공원 7개소, 테마공원 4개소로 나타났으며, 공원의 면적은 1,000㎡ ~ 1,999㎡ 크기의 공원이 93개소로 54.7%나 되었고 3,000㎡이상 공원도 46개소인 27.1%로 상당수의 대형공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 - 그리고, 대구시 관리 공원을 제외한 공원 150개소 중 91개소(약 60.7%)에서 1개의 CCTV를 설치, 2개를 설치한 공원은 43개소(28.7%)로 공원의 89.3%가 2개 이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CCTV 1대당 감시 범위가 넓은 상위 공원 30개소 중 26개소가 근린공원으로 근린공원에 더 많은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둘째, 달서구의 도시공원 90개소를 대상으로 CPTED의 5가지 원리 즉 자연적 감시성, 야간 감시성, 접근 통제, 영역성, 유지보수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·분석한 결과

- 자연적 감시성과 야간 감시성 하위 공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경과 디자인 그리고 적절한 조명 추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,
- 접근 통제 하위 공원에 대해서는 접근 통제를 위해 공원 경계에 대한 적절한 조경과 출입구 정비가 필요하고, 영역성 하위 공원에는 적절한 표지판의 정비와 부족한 CCTV 감시를 더 늘릴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.
- 활동성과 유지보수 하위 공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고 휴식 시설 확충, 접근성의 확보, 공원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그리고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조사 대상 46개소 중 하위 10개소의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내부 조명을 밝게 하고 화장실 출입구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외부에서 화장실 입구에 대한 감시성을 높임으로써 화장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

○ 셋째, 국내외 우수 공원의 사례로는

- 부산일대 부산시민공원, 푸른솔밭공원, 삼락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우수 공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공원에서 달서구에 도입 가능한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.
- 그리고, 덴마크 뇌레브 공원, 미국의 버지니아주, 영국, 캐나다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 조성의 우수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.

○ 넷째, 본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으로는

- 공공장소로서의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의 주체로서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

- CPTED 원리를 적용한 정책 제안으로

- ▶ 불필요한 조경과 구조물은 자연적 감시성을 저해하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노후화된 야간 조명등의 교체가 필요합니다.
- ▶ 그리고, 넓은 공원의 경우 CCTV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며, 설치 시 조정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- ▶ 공원에서 금지된 행위에 대한 표지판을 규격화하여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, 공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 등 불법 주차를 방지할 블라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.
- ▶ 위급한 상황에 공원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의 설치와 운동시설 등 주민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
- 끝으로 조례 관련,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명시화하여 거버넌스 구축을 더욱 실질화할 것과 대구광역시 중구 등 다른 지방자치 의회의 조례를 참고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

○ 이외의 좀 더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는 대구의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달서구 내 공원의 범죄 기회를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환경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이번 연구의 결과를 행정과 정책에 잘 반영하여 공원을 더욱 안전하게 주민들이 공원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만듭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,

연구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쳤지만, 앞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이 활동을 계기로 도시공원 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,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.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